

성 유대철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최병애 (파우스티나)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고 해 성 사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주 일 미사 전 30분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미사 전 15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 자 영 성 체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관 련 혼 배

축
세
례

“하느님의 자녀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일시: 12월 08일(오늘), 오전 11시(교중미사)

- ① 심욱 베드로 부주임신부님 피정 (12월 11일까지)
-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② 병자영성체: 12월 12일(목) 오전 10시 미사 후
- ③ 성탄 대축일 제대꽃 봉헌 (사무실 접수)
- ④ 2019 성탄 판공성사 및 대림특강 안내
- 대림기간 동안 보시는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에 해당
- 판공성사표를 넣어주셔야 반드시 교적에 성사체크가 되며 연락처가 바뀐 분들께서는 성당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바랍니다.

————— 공동 참회예절 / 개별사죄경 / 공동보속 —————

날짜 시간	12월 20일(금) 오후 8시 ~ 오후 9시 40분	선택 2가지 이상
	12월 21일(토) 오후 8시 ~ 오후 9시 40분	
보속	① 대림 특강 1회 이상 참여하기	이상
	② 평일 미사 2회 이상 참석하기	
	③ 본당 추천도서 읽기	
	④ 자선 행위 2회 이상 실천하기	
	⑤ 묵주기도 5단 바치기	
	★ 어린이·청소년은 선행 2회 이상	

대림특강 1: 12월 10일(화) 오후 8시, 2층 대성전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2D에서 3D의 세상으로
 현정수 요한사도 신부님 (수원교구 교잔성당 주임신부)

대림특강 2: 12월 17일(화) 오후 8시, 2층 대성전
 4차 산업혁명의 성경적 의미와 크리스천의 사명
 안종배 교수 (국제 미래학회장,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 ⑤ 중·고등부 캐롤 가정방문 신청 (사무실 접수)
- 방문일시: 12월 24일(화) 오후 5시~ 오후 7시
- ⑥ 중·고등부 주일학교 동계피정 (12월 28일 신청마감)
- 일시: 2020년 1월 4일(토) ~ 1월 5일(주일) 1박 2일
- 장소: 동천 성바로로 성당 // • 회비: 4만원
- 문의: 정 테오도로 (010-5645-7042), 성당 사무실
- ⑦ 호스피스 20주년 행사
- 일시: 12월 8일(오늘) 교중미사 후, 1층 프란치스코홀
- ⑧ 모범적 신앙생활 하신 분을 찾습니다
- 본당에 헌신적으로 공헌하신 교우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 2층 대성전 로비에 추천서를 비치하오니 작성하시어 추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부분: 봉사상, 선교상)

① 제 21대 사목위원 명단

직책	이름	세례명
총회장	손영모	가브리엘
부회장	송철영	라파엘
부회장	우정수	마르타
부회장	최종국	요셉
부회장	황택근	시몬

직책	이름	세례명	직책	이름	세례명
총무	이승학	베드로	남성총구역	권희성	요아킴
부총무	정기진	레오	여성총구역	우정수	마르타
부총무	함경원	아론	문화홍보	윤주광	토마스
부총무	문태일	스테파노	사회사목	강용선	소피아
부총무	성상훈	마티아	선교	장순천	사도요한
부총무	전혜정	글라라	성전관리	김영덕	미카엘
부총무	안선문	플로렌시아	재정	정진태	요셉
기획	백민석	필립보	전례	양승원	알베르토
가정	김윤희	스텔라	환경생명	송정순	마리아
교육	전중정	마리아	청년	김천복	시몬
노년	이희숙	벨라렛다	청소년	이진옥	리노

- 각 분과별 제 21대 사목회 분과장으로 선임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본당 사목활동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⑨ 감사합니다
- 지난 11월 30일(토) 청담성당 교우 90명과 도봉산 성당 교우 60명이 모여 연탄, 쌀, 라면, 휴지 등 각종 후원품을 어려운 이웃 100여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 ⑩ 희망트리 설치 (2층 대성전 로비)
- 본당 교우들의 올해 감사한 마음과 2020년도 소원을 희망카드에 담아 희망 트리에 달아주세요♡
- ⑪ 대림 저금통 배부 (12월 29일까지 사무실 제출)
- ⑫ 울뜨레아 송년의 밤
- 일시: 12월 15일(월) 오후 6시, 1층 프란치스코 홀
- ⑬ 박상운 토마스 신부의 묵주기도학교 공개강의
- 일시: 12월 9일(월) 오후 1시 40분~, 2층 대성전
 12월 16일(월) 오후 1시 40분~, 2층 대성전
- ⑭ 12월 8일(오늘): 국군장병 및 수감자들을 위한 2차헌금

모임

- 12월 9일(월): 성령 기도회(강사: 신정환 요셉)
- 12월 10일(화): 여성 Co.
- 12월 11일(수): 성모회 / 시몬회 / 여성 총구역장회의
- 12월 13일(금): 남성 구역장회의
- 12월 14일(토): 청소년분과 / 초등부 자모회

성가번호 입당: 481 예물준비: 220, 512 성체: 197, 187 파견: 91

화답송

주 님 이 시 대 에 정 의 와 평 화 가 꽃 피 게 하 소 서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10)

서평 <용서가 어려울 때>(6)

자신을 먼저 용서하기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 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이미 고백한 죄를 반복해서 고백한다. 심하게 자책감에 빠진 사람은 하느님께서 용서하셨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누구도 용서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가엽게 보아주기를 바란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마더 데레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하느님은 벌하지 않으신다.”(125쪽) 왜 우리는 자신을 벌하는가? 자신을 먼저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상대의 처지가 되어보기

이 책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의 주인공 스쿠르지를 소개한다. 인색하고 매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는 어느 날 꿈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유령을 만난다. 특히, 과거의 유령은 그의 비참했던 어린 시절을 보여준다. 저자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가 텅 빈 썰렁한 기숙학교에 혼자 남아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독자는 왜 스쿠르지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수전노로 외롭게 살고 있는지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그를 용서할 가능성이 커진다. 상대도 상처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될 때 용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쿠르지는 꿈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체험하면서 마침내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한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스쿠르지에게 구원된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준 것이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그 상대방 전부를 나쁘게 보고 악마 취급을 한다. 나에게 그저 고통을 안겨준 원 인제공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보다 쉽게 용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말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과 죄인은 서로 다른 존재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스스로 죄인을 만들어냈다.”(130쪽)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의 죄만을 보시지 않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보신다. 그러기에 그분은 죄인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용서해주시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무지와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에게 이렇게 외치신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주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기준 낮추기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것은 상대방에 거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거나 완벽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는 예수님 말씀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말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용서는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청담동 성당 주임 김민수 신부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감사 헌금 (11/27~12/03)			
대림 제 1주일	13,726,750원	정 요셉	100,000원	정 캐더린	200,000원
교무금	62,810,000원	홍 프란치스코	300,000원	김 안토니오갈바로	100,000원
성소후원금 (14건)	566,000원	김 소화데레사	50,000원	윤 세실리아	50,000원
교무금 납부 현황		박 마리아	50,000원	손 카라리나	50,000원
총 세대수	4,193세대	익명	1,400,000원	김 베드로	50,000원
총 납부세대	1,431세대	헌화회	2,000,000원	-	-
지난 주 납부세대	20세대	합계 : 4,350,000원			
총 납부율 (%)	34.1%				